POST CORONA 불교계는?

# 포스트코로나, 불교 '친환경 · IT'로 대응

## 한국불교학회 · 종학硏 · 불교사회硏 세미나 등서 담론 이어가



민정희

"불성론 해석, 생태윤리 구성"



최종석

"신도 공공성 강화 선결조건"



조기룡

"IT연등 도입, 사이버대 발전"



김응철

"촬영 등 새 신도교육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 일로 속 맞이하는 2021년, 불교계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친환경 · IT로 대응해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구랍 23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동계워크숍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불교철학의 지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한국불교의 역병 사례와 불교계의 해결책',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처장의 '기후변화에 대한 불교철학의 대응과 활로' 등이 발표됐다.

이날 민정희 사무총장은 "불자들 스스로 불교는 생태적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기후와 생태위기에서 관심을 갖고 행동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 생태위기 대응활동을 위해 연기설과 불성론의 재해석과 생태적 행동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종남 명예교수는 "보살의 공성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사찰이 소재한 지역 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생태 뿐만 아니라 인간환경 회복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와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구랍 17일 언택트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불교의 변화와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불교 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조기룡 동국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찰운영 방안'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도교육과 포교활성화 방안' △이필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등이 화상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먼저 조기룡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찰운영 방안'에서 사찰의 공적 가치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기룡 교수는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로 칭해지는 시대, 뉴노멀의 핵심은 공공성, 공동선 실현"이라며 "사찰은 공적 영역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더욱 보여야 한다. 인권과 환경 등 사회 공적 가치에 더욱 부응하는 사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사 등에서도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 연등보시, IT와 접목한 온라인 종교체험을 통한 위로 등도 제안했다.

이어 조 교수는 "새 언택트 문화에서 사찰은 콘텐츠 구성의 훌륭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사찰만의 고유하면서 현대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양성과 섭외, IT에 친숙해지려는 스님들의 노력과 사이버 불교대학의 발전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도교육과 포교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신도교육과 전법교화의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전법교화를 실천하는 신도들 중 지도력을 갖춘 핵심신도가 보다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핵심신도들을 전문포교사로 키워내 전문영역에서 포교를 진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신도교육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신도교육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전교육 외에도 실천과 체험의 교육이 증가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는 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김 교수는 SNS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영상촬영과 편집 등을 신도교육에도 포함시키고 SNS, 영상포교팀 등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필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불교의 사회적 실천방안이 중요하다. 사찰음식, 명상 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속 개발되어야 한다. 템플스테이 또한 국민치유에 활용 중이지만 코로나 확산을 대비해 비대면 운영 등도 개발하여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한국불교는 뉴노멀 사회에 분명한 방향타를 설정해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현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이를 불심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불교계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 월정사, 새해 용맹정진기도 온라인 생중계

### 1월 1일~8일 168시간 기도
### 유튜브 채널서 실시간 공개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의 새해 용맹정진 철야기도 현장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새해 평안을 발원하기 위해 사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새해를 맞아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월 8일 오전 10시까지 7일간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불자와 국민의 지혜, 용기, 희망, 생명, 평화를 기원하는 용맹기도정진'을 봉행한다. 매일 24시간 총 168시간 동안 이어지는 정진기도는 월정사 대중 스님들이 집전하는 가운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진행된다. 특히 월정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번 용맹기도정진을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를 통해 168시간 동안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공개한다.

월정사 측은 "스님들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맑혀 청정한 세상을 장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지극한 원력으로 기도 정진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과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도정진은 〈삼국유사(三國遺事)〉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편의 내용에 근거해 봉행된다. 해당 자료는 삼국시대 오대산에서 화엄법회를 열어 청정한 스님이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도록 하며 나라의 화평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다는 기록이다. 월정사는 이 같은 전통을 이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불자와 국민을 위로하는 한편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구촌 인류가 불안과 고통의 시대에 직면해 살고 있으며, 그동안 물질문명과 과학문명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사(山寺)를 찾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월정사 스님들의 '새해맞이 용맹기도정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념 스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연말연시에 가정이나 일터 등 각자의 공간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 '비암사 극락보전', 세종시 첫 보물된다

### 문화재청 지정 예고 발표
### 17세기 지역색 반영 평가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첫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비암사 극락보전'〈사진〉이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구랍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碑巖寺 極樂寶殿)'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를 하게 됐다.

비암사는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비암사에서 출토되었고, 지금까지도 비암사를 '삼한고찰(三韓古刹)'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의 창건 시기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여진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일반적인 측면 3칸형에서 벗어난 2칸형 불전으로, 전란 이후 사찰 경제가 축소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포의 구성은 크기에 따른 대첨차, 중첨차, 소첨차를 모두 사용한 특징을 보이며, 첨차를 배열한 방식, 내외부의 살미 모양 등에는 조선 중기 이후 다포 건축물에 보이는 특징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극락보전의 가구 구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는 측면 규모다. 보통 건물에서는 충량 1본을 두었으나, 극락보전은 충량을 좌우 협칸에 각각 3본씩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문화재청은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비암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